



따뜻한 사람 · 아름다운 세상

나누고 손잡는 곳이 극락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찰 입구에 문을 연 버섯식당에서 봉사중인 명법사 화정 스님(사진 원안).

나눔 통한 생활속 慈悲行 실천

결식학생 부랑인 장애우들의 어머니 화정 스님 소년소녀가장돕기, 장학금 지급, 무료급식 등 보시행 30개 신도단체와 함께 철저하게 봉사, 수행 일상화

"내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지요. 있어서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기에 없는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26년간 밥 먹고 이 일만 하다보니 이제는 생활 돼버렸다"는 평택 명법사 총무 화정 스님. 스님은 평택지역 결식학생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부랑인 장애우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스님은 매일 결식학생인 청담중학생 20명과 기술평화생 21명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고, 매달 10~20명의 관내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자녀, 환경미화원, 119소방대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또 매주 토요일이면 신도들과 평택역에서 부랑인과 실직자 1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는 연꽃마을에서 무료급식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장애우축제와 소록도 나병환자 쉼터 지원, 경로잔치도 성대히 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재민돕기, 정월초하루 추석 부랑인잔치 등 스님의 보시행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생활 속에서 화연의 꽃을 피우며 자비행을 실천하여 '생활자재가 법문'인 화정 스님은 17세에 출가한 이후 안행일치의 수행을 위해 선방에서 참선정진했다. 이후 삼선승가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너의 눈동자를 달라고 하면 빼주돼 가는 길도

밝혀주라'라는 경구를 되새기며, 대승의 수행(봉사)에 들어갔다.

78년 3월 정신지체장애인의 집 집수리를 시작으로 세상을 향한 농사를 지어온 것. 특히 1998년 IMF당시에는 사찰입구에 버섯식당의 문을 연 뒤 8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일해왔다. 벌어들인 수익금은 4등분하여 실직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결식소년들돕기, 네팔 대성식사가 지원, 납골당과 복지법인 건립기금으로 사용돼 의미를 더했다.

스님이 이렇게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동안 내적 어려움도 많았다. 명법사가 공원내 종중방 무허가 건물로 건립돼 끊임없이 소실위기를 넘겨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한 스님은 "대승불교의 수행(봉사)실천을 멈추지 않고 산골의 웅담샘을 파서(發穿) 물이 넘쳐 산골짜기 흐르고(事法界), 어느덧 시냇물이 되어(명법사 불사 理事無礙法界) 강물을 이루었다(법장사 불사 事事無礙法界)"는 말로 그간의 어려웠던 여정을 표현했다.

스님의 이 같은 봉사위주의 사찰운영 뒤에는 30개 신도단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신도단체들은 철저하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수행하는 것이 생활화돼 있다.

신도조직의 활성화는 포교 초창기부터 어린이

회 학생회 청년회 장년청년회(법륜회) 거사회 합창단 신도회로 나눠 조직을 키워온 스님의 인재 불사 위주의 생각에서 비롯됐다. 신도회의 활성화는 불교대학 연꽃동산어린이집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이후 2003년 11월 9일 사부대중 화엄경 수행을 약회를 여는 것으로 1차 불사불사를 회향했다.

최근 평택시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를 위탁해 운영중인 스님은 2차 불사로 시설건립과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을 계획중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백용성조사 유훈에 따라 인도 보드거야에 건립추진중인 마하보디사의 원만항해를 기원하며 최근 팔만대장경경 축약본(12권) 108집을 군법당등에 법보시하는 등 반야용선의 뜻을 높이 올리고 있다.

김원우 기자



매일 결식학생 도시락(사진 위)을 전달하고 부처님 오신날에는 노인잔치도 연다(사진 아래).

■ 도와주세요

법문봉사합니다

부루나전법문봉사단(단장 계성, 전등사 주지)은 법사를 모실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직장 직능단체와 군법당 등을 찾아가 법문봉사를 펼친다. 봉사법사는 계성, 퇴휴, 법인, 지관, 심산, 도찬, 남전, 선웅, 정법, 성광, 진오, 영일, 선재, 만성, 월광, 광태, 선혜, 성광 스님과 김법준, 김형중, 김중섭, 민관식, 박경준, 박영동, 손양호, 신진욱, 성재현, 양재형, 우인보, 이동배, 이옥태, 이학승, 이학주, 전창응, 최현식 법사이다. 법사 지원문의 (02) 725-5233

■ 도와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전문요양원 모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인다. 전문요양원은 치매, 중풍치료를 등이 들어선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복지시설로 활용된다. 후원계좌 : 농협 163-01-407551(예금주 나눔의 집). (031)768-0064

■ 도와주세요

의료봉사자를 찾습니다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한방진료와 수지침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월 1~2회 활동을 한다. (02)852-0525

■ 보내주세요

사랑의 후원품을 기다립니다

부산 울문대중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후원품을 기부받는다. 후원품은 독거노인 생신상 후원, 경로식당에서 사용될 수저미, 청소용 락스, 세제 등의 주방용품, 또 장애아동 많은소리터교실에 비치될 동화책 등. (051)264-9033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 나눔의 가게

- 서울 제기동 남명약국
- 공평동 전통찻집 솔밭
- 건지동 불교용품점 김상원
- 건지동 가사야 승복점
- 건지동 수정 한정식점
- 고양 주엽동 차수권 바독도장
- 주엽동 연세소아과
- 창원 중앙동 친구노래방

■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빈부격차와 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23만여명의 저소득 장애인, 137만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천여명의 미아,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나눔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원순이해를 맞아 원순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물자가 운영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 스티커 나눠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의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기로 하고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동참

- ▲윤인 보현정사(주지 청화)가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동참했다. 청화 스님은 "나눔은 등이 사회화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동참하게 됐다"며 "나눔의 저금통 100개와 스티커 100개를 신도 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 ▲공주 약천사(주지 행선)도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함께한다. 행선 스님은 "주위사찰에도 나눔의 손잡기 운동의 동참을 홍보하겠다"며 "가게를 운영중인 신도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말했다.
-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가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참여한다. 성기태 회장은 "법사가 없는 재학생 불교학생회의 법문지원 봉사과 동문별 직업특성을 살려 월별 테마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현재 구체화된 나눔캠페인 동참 사업계획을 수립중이다.

■ 이렇게 참여하세요

- ① 각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사) 법문 및 세무 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②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종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또 봉사자가 필요한 복지단체의 경우 봉사자를 요청하면 보내드립니다.
- ③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받아갈 개인이나 가게는 연락주세요. 스티커도 함께 드립니다.
- ④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⑤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⑥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⑦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⑧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눔운동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⑨ 자비의 헌혈증 및 골수기증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골수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⑩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임야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 5년째 소년소녀가장 도운 지담 스님

소년소녀가장을 비롯 불우한 이웃을 5년째 돕고 있는 지담 스님(사진). 서울 개화동 약사사에서 부전생활을 하며 푼푼히 모은 돈을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스님이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은 모두 7명. 수원 신갈에 있는 두 소년가장 김영국(20)·영일(17) 형제와 서울 마천동 박석철(20)·인철(17) 형제, 신장병을 앓고 있는 서울 연신내동 할머니(65)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 등이다.

부전생활하며 주변에 육바라미 삶 실천

"어느 날 택시 기사님이 주변의 불우 이웃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참하게 됐습니다." 사소한 동기로 시작된 도움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80여만원. 많지 않은 수입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스님은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돕겠다는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다"며 각오를 밝혔다. 후원문의 019-313-5671 박봉영 기자

뇌종양 투병 조주희 양 성금 이어서

뇌종양 투병중인 산골소녀 조주희(월정분교 5년) 어린이 사연이 본지 461호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소개되면서 성금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 인후동 이영옥 보살은 "작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신문을 보고 회원들과 심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매달 치료비를 기탁하기로 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월정분교 한기철 선생님은 "기사가 나간 후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며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